대행선사 추모글

## “어느 생에선가 스승님 닮은 삶 살겠습니다”

스승님!

새벽에 눈을 떠 스텐드를 켜고 침대 머리맡에 있는 ‘허공을 걷는 길’을 손가는 대로 펼쳐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다가 맡겨놓고 살림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병고 아니면 애고, 애고 아니면 재난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유전성이니 영계성이니 업보성이니 세균성이니 이런 문제들이 모두 덮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때때로 심심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자기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모든 걸 탓하지 말고 제가끔 자기 탓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홀랑 벗어난다 이겁니다. 나한테 닥치는 대로 그냥 그 중심에 놔라 이겁니다. 놓고 가라. 거기서만이 모든 걸 들이고 내는 거니까, 모든 건 네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놈이 다 알아서 할 게 아닌가 하고 왈칵 다 놔 버리는 거죠.”

마음을 모아 스님 법문을 읽고 있으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돌이켜 보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늘 혼자서 발버둥치면서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경계에서 스승님을 만났고, 차츰이 모든 일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저질러 놓은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나를 형성시킨 그 자리에 놓는 법을 익히면서 자신을 추스려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계를 만날 때마다 ‘모두 한 놈이다.’ 하고 하나로 굴려 놓는 법을 생활 속에서 익혀가고 있는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번 생이 괴로움도 많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것도 많지만,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한 생입니다. 스승님을 만났고 수억 겁 생을 살아오면서 내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업식들을 다스리고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모든 것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납득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무지했던 저를 이렇게  중심 잡고 설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스승님과 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임을압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 모두 부처임을 믿고 있습니다.

스승님!

아직은 서툴고 미흡하지만 제 자신이 부처임을 확연히 알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어느 생에선가 스승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스승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제 가슴에 살아 계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현숙(중부경남지원)

## “삶은 충분히 살 만한 가치 있는 것 배웠어요”

청운의 젊은 시절에 뜻을 세우고 노력을 하였건만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물질만능의 현대를 살면서 욕구와 집착 속에서 마음을 비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찾지 못하고 고뇌하며, 가치관의 상실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절인연이 되어 2009년 5월에 선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의 인도로 스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수억겁 년 동안 나를 형성시켜 주고 이끌어 온 자성인 참나를 발견하였으며 에너지의 원천은 나의 근본인 주인공임을 알고 깊은 환희의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지난 생애를 되돌아보며 참회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성찰과 무명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삶은 절대 절망이 아니고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으며 지금 이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콩씨를 심은 곳에 콩이 나온다는 인과의 법칙을 깨달으며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어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천명의 나이에서 이순을 향하는 나이인 인생의 2막은 스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 지니고 살아가렵니다. 살아가야 할 앞날의 시간에서 다가오는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길을 열어주시고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성삼보에 귀의하여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나의 근본 주인공을 믿는 부동심의 마음과 불퇴전의 수행으로 끊임없이 진화되고 발전이 되도록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중생과 함께하여 주신 따뜻한 자비심과 사랑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합니다. 가고 옴이 없이 떠나신 스님을 보낸 비통한 마음과 더욱 더 존경하는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이 세상에 큰 가르침을 펼치는 뜻을 가집니다. 스님의 법신이 세세생생 중생들에게 등불이 되어 이끌어 주옵소서.

한마음 한 뜻으로 마음의 등불 밝히어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들며 세계평화를 이루기를 합장하며 발원합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총철 이양우

## “마음공부 잘해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자성삼보에 귀의하오며.

작년에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아침에 청수 올리면서 ‘스님 청수 올립니다.’ 하고 고할 때 사진 속 큰스님께서 살아생전 모습으로 빙긋이 웃어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가옵니다. 스님께서 가시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비식 뒷날 ‘스님께서 가셨어도 바로 이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법문에 ‘이승과 저승은 문지방 하나 차이다. 저승이 멀다 해도 문지방 넘어다.’ 하시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습을 갖고 있으면 이승이요, 모습을 벗으면 저승이요, 저승과 이승은 다 이 한세상이구나. 스님께서 가셨어도 이 자리 이 세상에 함께 하고 있구나! 모습만 없을 뿐 함께 계시구나 싶었습니다.

법성게에 ‘깨친 지혜로 알 일일뿐 다른 경계로 알 수 없네.’ 했듯이, 통로는 오로지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내 근본, 주인공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어나는 의식에 하기 싫은 마음도 생기도 해서 열심히 못했습니다.

올해는 마음공부 잘해서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스님! 스님 덕분에 살아 있고 이 공부할 수 있고 이 길을 갈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이런 마음을 내게 됩니다. ‘모든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한뜻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며, 저희들의 공부가 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도록 세세생생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

스님, 은혜 보답하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스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교 올림 (중부경남지원)

# “한마음 인생살이에는 ‘苦’가 없다”



“냇물이 흘러서 언젠가는 바다에 이르듯 누구든지 언젠가는 성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신 대행 스님은 대중에게 언제나 당당하게 살라고 설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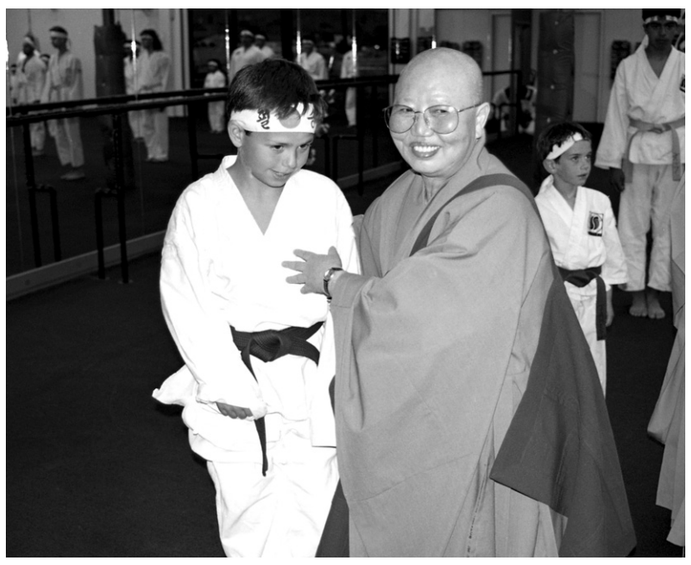


1996년 9월 15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대행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서울 대법회가 열렸다.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는 주제로 열린 대법회에는 3만여 청중이 참관했다.

**“부디 공부 열심히 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한마음으로 이어져**
**부처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행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국태민안과 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열었다.



대행 스님이 미국 롱아일랜드 한일 태권도장 법회 후 미국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날짜미상)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현대불교신문 창간15주년 특별기획

대행스님 법훈록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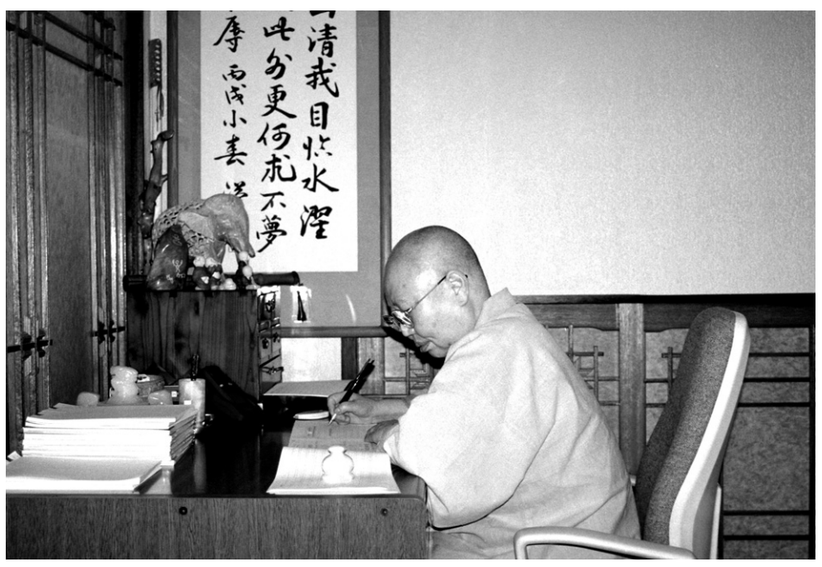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택배비 별도)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



1995년 대법회에서 정좌하고 계신 대행 스님.



원당(구) 선실에서의 대행 스님 일상 모습. (날짜미상)

추모 인터뷰

# "가르침 대로 살겠습니다"

## 스님이 내린 게송, 고비마다 버팀목

**류종열 前 한국 바스프 대표이사**



류종열(74) 거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기아자동차(주) 및 아시아자동차(주) 법정관리인 및 회장, 그리고 한국바스프(주) 대표이사 등 유수의 기업을 이끌어 온 사회 리더다.

그가 대행 스님을 만난 것은 1988년 일이다. 이웃의 소개로 스님을 만난 류 거사는 보는 순간 스님이 너무 좋았다. 당시 대행 스님은 류 거사에게 지병에 대해 충고를 해주기도 했다.

"제가 당시 피부염을 앓고 있었어요. 가려워서 밤중에도 몸을 긁으면서 잤죠. 그런데 스님께서 신경성피부염이라며 민간요법의 처방을 알려 주셨는데 정말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류 거사와 스님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고, 그는 한마음선원 신도로서 열심히 신행활동을 했다. 그러다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로 있을 때 그에게 큰 난관이 왔다. 노사간 의견을 조정하는 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사가 서로 요구하는 바가 너무 달랐어요. 사측은 저에게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임금을 주라고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노측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난감했죠. 그래서 결국 답답한 마음에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께서는 저에게 게송을 내려주셨어요."

천적(天寂)의/ 산하대지가 고요한데/ 내 마음은 물결 따라 / 끊임없이/ 돌아흐르고/ 류박사의/ 한방울의 마음을/ 음악에 실어 전하니/ 내 눈에 이슬 맺혀/ 한없이 뿌리며/ 한 그릇의 용탕 끓여/ 밥상 위에 얹었더니/ 일체만생/ 다같이 먹자하여/ 만물만생/다 먹고도/ 류박사 밥상 위에/ 그 한 그릇/ 되 남았노라.

"그렇게 게송을 받고 현장으로 가니 이상하리만큼 모든 일들이 잘 풀렸어요. 노조 간부들이 회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며 염소탕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일이 스님이 축복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노트를 복사해 코팅을 해 가지고 다니다가 최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대행 스님은 류 거사에게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버팀목이 돼 주었다.

"지금도 계속 마음에 남는 건 스님 생전 마지막에 제가 친견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후회가 되네요. 늘 스님이 그립습니다. 앞으로 스님의 뜻을 잇는 많은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숙 기자**

## 스님 사진에 매일 108배… 법향 그리워

**김재진 시인**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등 감성적 시들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김재진 시인. 명상 인터넷방송 유나방송 PD로도 잘 알려진 그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삶의 전환을 이뤘다. 그 만큼 스님의 1주기가 깊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스님은 가셨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계시지요. 그래도 스님을 친견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법의 향기를 어렴풋이나마 간직하게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번 생이 행운이며 기회였구나 하는 마음으로 1주기를 맞습니다."

김 시인의 작업 공간에는 대행 스님의 사진이 놓여 있다. 스님과의 인연을 맺은 후 삶의 고비마다 스님을 떠올리며 기도를 해왔다. 특히 스님의 열반 전후로 찾아온 고비에도 스님의 사진을 향해 매일 108배와 기도를 시작했다. 이 원력으로 김 시인은 삶의 고비를 무사히 벗어났다.

처음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접할 때에도 김 시인은 부침을 겪고 있었다. 잘 나가는 방송국 PD를 그만두고 낭인처럼 떠돌던 시절, 차 안 구석에 있던 대행 스님의 법문 카세트 테이프를 짚어 재생시켰다. 김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법문을 듣는 순간 뭔가 굉장한 폭발음을 내며 의식이 폭발하는 듯"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우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지요.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던 많은 것들이 나와 타인이 함께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니 자연스럽게 시 세계도 달라졌다. 단순히 언어유희가 아닌 삶을 직관적으로 반추하는 시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마음의 문을 크게 열어젖혔던 스님의 영향은 제가 쓰는 시를 단순하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언어의 유희에 재미들인 알쏭달쏭한 시가 아니라 언어를 떠나 직관적으로 오감에 내리꽂히는 시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할 곳이 없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남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김 시인. 그는 입으로 말하는 진리가 아닌 행동으로 불법(佛法)을 실천하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고, 1주기를 맞는 제자의 자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입으로 진리를 말하기 전에 마음에 그 뜻을 새기고, 마음에 새긴 그 뜻이 행동으로 옮겨져 세상에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신중일 기자**

## '내안의 주인공' 가르침, 항상 되새겨

**이화행 동명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1997년 독일에 한마음선원 지원이 설립됐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사찰에 나갔습니다. 당시 처음 뵌 대행 스님은 저와 저희 가족의 독일 생활에 큰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대행 스님과의 인연 덕분입니다."

현재 부산지원 신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화행 동명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이 교수는 큰 스님 1주기를 맞아 독일 유학 당시 대행 스님과의 인연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처음 뵈었을 때 스님이 '마음을 편히 가지면 모든 일이 잘 될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당시 개원기념 법문을 듣고 받은 느낌은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내 내면을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독일지원을 처음 찾은 이후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법회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됐다. 가족이 있었지만 한국인이 적었던 독일 사회에서 지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격려는 그에게 큰 힘이 됐다.

"당시 유학을 하고 있던 젊은 부부 5쌍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독일에서 사는 도시가 각각 달랐지만 정기법회를 기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갖고 법회 후 저녁마다 밤을 새워가며 신행담과 독일 생활, 그리고 학문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 덕분에 학업도 열심히 할 수 있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도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다.

이 교수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나를 지키는 주인공이 있다.'는 가르침을 항상 지니고 산다"며 "큰 스님의 육신은 떠나셨으니 우리들 마음에 항시 같이 있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눈시울을 적셨다. **노덕현 기자**

## 뜻으로 푼 〈반야심경〉 읽고 발심

**이예은 〈한마음저널〉 홍보담당**



이예은 보살(46)은 현재 한마음저널 웹홍보 담당을 맡고 있다. 한때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 헤맨 적도 있었다. 그러다 어느날 울면서 차를 달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바로 한마음선원 앞이었다. 이 보살은 어르신들이 앉아 좌선을 하는 광경에 사로잡혀 법당에 앉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뜻으로 푼 천수경〉 〈뜻으로 푼 반야심경〉을 읽기 시작했다. 구절구절이 와 닿았다. 2005년 가을의 일이었다.

이 보살은 그때부터 한마음선원 신도가 됐다. 대행 스님 말씀을 비디오 법문으로 들었지만 법문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다. 그렇게 그녀는 마음공부를 시작했다.

"그때까지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선원에 오고부터는 서원을 세우고 108배를 하면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알았죠. 내 마음이 상대를 분별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요. 제 원망 미움의 마음이 스르륵 녹았어요."

이후 이예은 보살의 가족은 원만해졌다. 모두가 행복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젊은 시절 피디가 꿈이었던 이 보살은 영상제작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서 직업도 생겼다. 영화 촬영 작업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주중에는 영화 촬영을 하고 주말에는 선원에 나가 영상 봉사를 했다. 너무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마음저널 팀에서 영상 일을 맡아줄 수 없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저는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인생을 구원받은 것처럼 스님의 법문으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정혜숙 기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값 11,000원 (택배비 별도)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